

밀동만 남긴채 '삭독'... "분위기 삭막"

중문관광단지 도로변 야자수 부실 제거 논란 관광객 "오히려 미관저해... 예전모습 그리워"

한국관광공사가 중문관광단지 내에서 야자수 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야자수의 뿌리 확장으로 인해 밀동을 제거하지 못하면서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더욱이 제거되지 못한 야자수 밀동은 도로변에 그대로 방치돼 있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찾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도로변에는 과거 이국적인 풍경을 조성했던 야자수는 온데간데없고 밀동만 남겨져 있다. 특히 높이 1m 가량의 야자수 밀동은 중문관광단지 내 도로변 곳곳에 방치돼 있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었다.

관광객 김모(24·서울)씨는 "수년 전 찾았던 중문관광단지의 모습이 아니다. 무잡히 잘려나간 야자수 흔적이 안타깝다"며 "밀동만 남기고 잘린 야자수 흔적이 오히려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등 관광지 관리에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는 야자수 뿌리 확장으로 인해 야자수 밀동을 제거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야자수 밀동에 대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 사업을 올해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밀동만 남겨진채 잘려진 야자수.

27일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에 따르면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1단계 개발 지역(단지 내 서부지역)에서는 단지 내 도로변에 식재된 워싱턴 야자수 320여그루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대체 수종을 심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도로변에 심어진 야자수는 이미 뿌리가 도로 주변까지 뻗어 있어 야자수를 완전히 제거할 경우 인도와 경계석 등을 모두 정비해야 하는 등 대규모 공사가 불가피함에 따라 야자수 밀동만 남기고 상단 부분만 잘라냈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야자수 밀동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했다"며 "늦어도 올해 말까지 대안을 찾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문관광단지 내 도로변 야자수는 1982년 식재된 것으로, 35년 넘게 중문관광단지 이색 풍경으로 자리를 잡아오다 그동안 제기된 안전사고 발생 우려 때문에 제거되고 있다.

검정고시에 251명 합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7일 실시한 2019년도 제2회 초등학교 졸업학력, 중학교 졸업학력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명단을 27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초졸 검정고시에는 15명이 응시해 12명이 합격(80.00%)했으며, 중졸 검정고시에는 80명이 응시해 62명이 합격(77.50%)했다. 고졸 검정고시에는 283명이 응시해 177명이 합격(62.54%)했다.

초졸 검정고시 합격자 중 최고령자는 차모(70·여)씨, 최연소자는 이모(11)군이며,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 중 최고령자는 강모(55·남)씨, 최연소자는 강모(12)양이다. 또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최고령자는 현모(68·여)씨이며, 최연소자는 박모(13)양이다.

표성준기자



제주도 전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27일 제주시 연삼로변 도로가 빗물로 넘치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 200mm 물폭탄에 침수피해 속출

119, 17차례 고립 차량 구조·배수 지원

제주 전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피해가 속출했다.

27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 서쪽 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제주에 영향을 미치면서 제주 지역에 최대(오후 5시 기준) 약 200mm의 비가 내렸다.

기상청은 이날 새벽 제주도 산간을 중심으로 호우 주의보를 발효하고 오전 10시20분쯤 호우 특보를 제주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강수량은 한라산 삼각봉 184mm, 진달래밭 167.5

mm 등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 또 성산읍 수산리 194mm, 추자도 172mm, 고산 101.5mm의 강수량을 기록했으며 제주시와 서귀포도 각각 77mm, 69.8mm의 비가 내렸다.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 사고도 곳곳에서 발생했다.

이날 낮 12시3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에서 갑자기 불어난 물로 인해 차량이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해 119 구급대에 의해 구조됐으며, 오후 3시32분쯤에는 제주시 노형동 지하 주점이 침수돼 소방차량이 배

수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인원 61명·장비 23대를 동원해 총 17건의 호우경보 소방활동을 벌였다.

기상청은 비구름대가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대부분 빠져나가자 이날 오후 5시를 기해 제주전역에 내려진 호우특보를 해제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29일 오전까지 시간당 30mm 이상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려 호우특보가 다시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제주4·3재단 '제2의 도약' 준비 돌입

제2차 중기발전계획 수립 조직진단 통해 업무 분석

올해 출범 11주년을 맞은 제주4·3평화재단이 두번째 도약을 준비한다. 조직진단을 통한 개선, 업무분장 분석,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하는 제2차 중기발전계획(2020-2024) 수립에 나섰다.

4·3재단은 지난 26일 국가종합전차조달 나라장터에 제2차 중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공고했다. 개찰일은 오는 9월 9일이며 예산은 5300만원이다.

올해 제1차 중기발전계획(2015~2019)이 마무리됨에 따른 조치로, 핵심 과업은 ▷장기비전 수립 ▷중기발전 계획 수립 등이다.

재단의 정체성 확립 및 그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조직의 제 특성과 기능에 맞는 조직운영 목표와 5년간의 단계적 전략을 제시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우선 1차 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통한 바람직한 조직 구성을 제시하고 개선사항을 분석한다.

또 제주도 4·3지원과 재단의 업무분장에 대한 분석도 진행한다. 재단은 제주도로부터 4·3희생자 머느리 진료비, 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4·3평화문학상, 4·3유해발굴사업, 4·3자료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 등의 업무를 이관 받았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4·3 관련 단체와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역할·관계도 분석한다.

특히 트라우마센터 건립사업 등이 포함된 4·3평화공원 4단계 계획이 검토되며, 이에 따른 업무이관을 예측해 조직시스템 설계에 방안을 분석한다. 아울러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개정방향 등 법적 검토도 진행된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멸종위기 바다거북 14마리 방류한다

제주자치도·해양수산부 오늘 중문색달해수욕장

멸종위기 바다거북 14마리가 오늘(28일)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자연 방류된다.

제주자치도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바다거북을 되살리기 위해 구조된후 치료되거나 인공 증식한 바다거북 등을 방류한다고 27일 밝혔다.

방류대상은 붉은바다거북, 푸른바다거북, 매부리바다거북 등 3종으로 구조·치료된 바다거북 4마리와 인공

부화 3마리, 연구용 국외반입 7마리 등이다.

바다거북 방류지인 중문 색달해수욕장은 지난 1999년부터 2002년, 2004년, 2007년 바다거북의 산란이 확인된 지역이다. 주변해역은 어업용 그물이 적어 혼획 위험성이 낮고 먹이가 풍부하며, 따뜻한 태평양으로 이동이 쉬워 바다거북의 생존에 적합한 곳이기도 하다.

도 관계자는 "멸종위기에 처한 바다거북을 살리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있는 만큼 제주연안에서 바다거북을 다시 만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오은지기자

해경 수상레저기구 야간운항 일제단속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한치 성어기 철(6-9월)과 추석 대비 수상레저기구 활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달 15일까지 야간운항 수상레저기구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1시46분 제주도 화북항 해상에서 기관 고장 레저기구를 구조했으나 야간 항해장비도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올해에만 야간운항 장비 미비치로 17건이 단속됐다.

또한 수상레저기구 안전사고 역시 올해 상반기에만 48건으로 전년 대비(20건) 2배 넘게 증가함에 따라 수상레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계도 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안전사고 위험이 큰 야간 운항은 무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야간운항 장비를 비치하지 않고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김현석기자

2019 남양홍씨제주도문중회 한마음대회

후손에게 승조, 애족 사상을 고취하고 중문의 단합과 화합을 도모하며 중문 상호간의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2019 남양홍씨제주도문중회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9년 09월 28(토) 10:00 **장소** 제주대학교 체육관

번외 경기

문중 단합 골프대회
9월 21일(토) 12:00
라운골프장

문의 : 청년회 골프회장 홍수은
(010-2788-4645)

참여대상 남양홍씨 제주도 중친회 및 각 계파 문중회 가족 동반 대환영

행사일정
10:00 개회식
11:00 한마음대회(1)
12:00 점심식사
13:00 한마음대회(2)
14:00 노래자랑
15:00 폐회식

[에어바운스 오전부터 운영, 참가 어린이 전원 선물 증정 중식, 참가기념품, 경품 등 제공]

※ 문의 : 청년회 부회장 홍태욱 (010-8380-1111)



문중회장 홍성수

제주도문중회

고 문 : 군석, 성봉, 경선, 원우
회 장 : 성수
부회장 : 만석, 순병, 태훈, 찬표
영철, 성권, 원기, 순길

명예회장 : 성표
수석부회장 : 은열
감 사 : 영철, 석만
총무이사 : 성수



청년회장 홍순길

제주도청년회

고 문 : 계담, 의기, 창구, 기부
회 장 : 순길
부회장 : 승균, 민표, 성만, 성주, 수은
정기, 창환, 명환, 경범, 태욱

직전 회장 : 여관
수석부회장 : 상기
지도위원 : 대표, 만수, 봉근, 정기
성관, 영수, 귀강, 상록
사무국장 : 경훈
총무이사 : 석기

· 주최 : 남양홍씨제주도문중회 · 주관 : 남양홍씨제주도청년회 · 후원 : 남양홍씨대종중중앙총회, 재일본관동·관서중친회